



사진=尹 泳 국장

클로즈·업

## 仁川직할시 保社局長

# 尹 泳씨를 찾아서

『우리 仁川市는 오는 7월 1일로 開港 100주년을 맞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 64회 전국體典도 우리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직할시 승격이후에 맞는 큰 행사로서 우리 120만 인천 시민은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치루워 나갈 계획입니다 -』

이렇게 말하는 仁川직할시 保社국장 尹泳씨는 날카로운 눈매에서 叡智가 넘쳐흐른다.

外剛內柔型의 尹보사국장은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무가로서 일을 처리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평이다.

기자가 港都 인천을 찾은것은 지난 3월31일 오전 -.

寄協 인천지부가 자리 잡은 港洞의 옛 인천 검역소자리는 오래된 건물을 수리한 것이라서 그런지 여느 다른 市道지부와는 다른 특이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직할시 승격이후 새로이 신설된 지부라서 그런지 韓相晉국장 이하 전

직원이 전부 開拓者정신으로 일하고 있었다.

○○공원 밑에 자리잡은 인천시청은 아담한 분위기와 함께 향도 인천을 대변하고 있는것 같았다.

인천 특유의 보사행정 자랑거리가 있다면? -

『우리 인천시는 매월 10일을 “서민보호의 날”로 제정하여 양곡, 부식, 연탄등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조를 받는 시민들도 여러가지면에서 人生설계를 다시 세워 준비 태세를 갖추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 효과를 걸우는 셈이지요 - 』

이 사업은 거택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尹국장은 자랑한다.

寄協등 4개 보건단체 지부가 설립되어 이제는 직할시로서의 인천의 면모도 갖추어져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尹국장은 國庫지원과 시비보조를 합쳐 인천 시민의 보건향상기여의 새 터전을 닦아 놓겠다고 사뭇 열의가 대단하다.

『특히 내년도엔 부지를 확보하여 4개 협회와 민간기구등이 합쳐 상호업무를 협조하는 건물을 세워 시민 보건을 위한 독자적 여건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힘주어 말하는 尹국장은 소득 수준의 향상과 의료시혜의 발달로 기생충은 줄어들고 있지만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기생충을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원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단다.

- 健協사업의 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도와 주시겠습니까?

『첫째는 弘報가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의학의 次元에서 다루어 져야 하는 만큼, 민간기구를 통한 홍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자와 대답하는 尹泳국장(左)와

金宗滿과장(左로부터 2번째) 韓相晉과장, 文益洙과장.





金宗滿과장

의 시비보조를 주었노라고 말하면서 내년에는 민간단체 보조금을 넓혀 민간사업으로 정착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

尹泳보사국장과 동석한 金宗滿보건과장은 인천자랑을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인천에는 송도등 유명 관광지가 많습니다. 임해관광도시로 개발해서 올림픽에 대비해야한다고 역설한다. 그리해서 보조경기장도 2개 정도 있단다.

송도개발에 민자를 유치해서 착공했는데, 100만명의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그 안에는 대형수족관, 해양박물관, 돌고래 경연장, 해수풀장, 보트장, 어린이 놀이터, 200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자전거 경운장건립을 계획하고 있노라고 자랑이다.

또한 장수동에 100만평 규모의 대공원을 건립, 심신수련장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尹泳보사국장, 金宗滿보건과장은 健協에 대해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삭년에 생겼기 때문에 조직적 홍보활동의 필요성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시 중요합니다. 더구나 인천지부는 새로운 조직과 스태프로 연고지가 아님으로 더욱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한가지 본부에 당부의 말씀은 홍보자료를 풍족히 만들어 공급해 줍소사 하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의 양호교사 홍보교육이 선행되면 학생들에겐 자연히 홍보가 되는 二重효과를 걸우는 셈이지요. 또한 새마을 부녀조직등을 통해 사회홍보도 해서 널리 알려야 합니다. 내년도에는 健協 寄協등에도 보조를 넓혀 민간 사업으로 정착화 시켜야 되겠고 순수 민간운동으로 뿌리를 내려서 이것을 주축으로 공감대를 형성,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습니까.』

힘주어 이야기하는 尹泳국장의 말에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엿보여 인천시민들의 보건분야는 밝다는 느낌을 준다. 寄協에는 작년에도 240만원

것입니다. 슬라이드 포스타 전단등은 꼭 필요한것들입니다. 그리고 썸볼 마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크만 보아도 아— 이것이로구나를 알아볼 정도가 되어야겠지요.

침투대상은 역시 영세민 위주로 해야할 줄 압니다. —

尹泳보사국장은 노인건강대책에 대해서도 一家見이 있는 전문가였다.

『노인문제는 심각합니다. 80년도 말이되면 평균 수명이 65.9세가 됩니다. ,

노인이 되면 4가지 역할을 상실하게 되는데 1. 역할상실 2. 고독노쇠 3. 소득상실 4. 질병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특히 건강회복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점을 착안, 금년에도 4800명의 노인건강진단을 실시 계획이며 의식개혁등 노인대학을 개설, 여가를 선용케 할 작정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노인 종합복지관을 민자 3억원을 유치, 1000坪 대지위에 연건평 430坪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하하……』 역시 尹泳국장 지휘하의 인천시 보사행정은 잘되겠구나를 느끼며 시청을 나서는 기자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기만 했다.

尹泳보사국장 약력 : 취미는 권투관람, 등산, 공원산책, 새벽조깅등 다양하다  
인하대학 경영대학원을 수료 인천시 북구청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등 요직을 거쳐 현 보사국장 취임. 부인 宋德姬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

---

## 「기생충예방 강조주간」

다채로운 행사 마련

한국기생충박멸협회 및 건강관리협회 는 제 1회 보건의 달 및 기생충예방 강조주간(4월18~4. 23)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계획을 마련했다.

즉 정부에서 제정한 4월 7일 보건의 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기생충 예방 강조주간에는 각시도 지부별로 중심가에 가두무료 상담소를 설치. 각종 기생충계몽, 가두검변사업 및 비전염성 만성질환 계몽을 실시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월 한달 동안 각종보건활동에 참가하여 국민들

의 보건의를 고취시켰다.

또한 가두상담소 주위에는 기생충 및 비전염성만성질환에 관한 전시판, 표본등을 전시하고 가두방송 계몽했으며 육교에는 현판을 전시하고 곳곳에 입간판등을 설치,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행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 언론기관에 협조의뢰하여 신문 라디오 TV방송 잡지등에 최대한으로 계몽보도를 실시했으며 이어서 기협및 건협 본부와 지부에서는 각종 유인물(포스타 리프렛, 팜프렛, 표어) 등을 제작 게시하여 기생충 예방 및 비전염성만성질환의 예방사상을 고취 시키기도 했다.